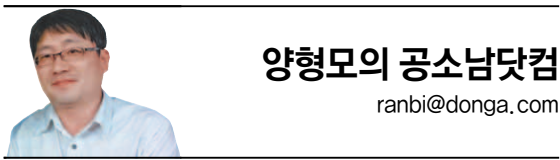


달콤한 ‘악마의 유혹’ 거부할 수 있습니까?



뮤지컬 ‘더 데빌’ 주인공 임병근 & 이충주

난해한 가사·파격 스토리로 화제
임 “선과 악의 선택 너무 힘든 일”
이 “작품 이해하는데 땀 좀 흘렸죠”

“여러분은 악마의 존재를 믿으십니까”라는 가사의 카메라 오프닝 멘트에 임병근, 이충주 두 배우가 “크흠”하고 웃음을 삼켰다. 두 사람은 요즘 뮤지컬 ‘더 데빌(Devil·악마)’에 출연하고 있다.

빛과 어둠을 상징하는 X화이트(임병근), X블랙(이충주) 역이다. 2014년에 초연된 더 데빌은 미국 월스트리트의 전도유망한 주식 브로커 존 파우스트와 그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 그레첸, 그리고 존을 사이에 두고 승부를 벌이는 빛과 어둠 혹은 천사와 악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초연 때부터 낮은 양식, 난해한 가사, 파격적인 스토리로 “불친절하다”, “괴랄하다”는 평을 양산한 작품이다. 불친절하고, 난해하며 심지어 괴랄하기까지한 ‘더 데빌’은 어느덧 재연을 넘어 삼연째 무대에 올려졌다.

강렬한 록비트의 음악도 멋지지만 이 작품의 진짜 백미는 가사에 있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명사들의 파편이 ‘불친절하게’ 뿌려진다. 예를 들



난해하고 불친절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강렬한 개성과 독특한 세계관, 배우들의 열연에 힘입어 마니아 관객층을 양산하고 있는 뮤지컬 더 데빌. 임병근(왼쪽)과 이충주는 빛과 어둠을 상징하는 X화이트, X블랙을 맡아 관객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던진다. 사진제공 | 알앤디웍스

어 “너는 나의 신전, 너는 나의 사과나무”라는 넘버의 대사는 무너지는 신전, 불타버린 사과나무, 흐려지는 세상이라는 식이다. 무너져가는 존의 모습을 보며 그레첸과 X화이트가 부르는 넘버다.

‘어둠의 통치시대’ 쪽으로 번역될 수 있는 ‘reign of darkness’도 만만치 않다. 임병근은 “이 넘버는 ‘더 데빌’을 꿰뚫는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빛과 어둠은 누가 정한 것인가. 이 둘은 사실 하나에서 태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했다.

배우에게 작품에 대한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스스로 완벽하게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연기를 할 수 없다. ‘더 데빌’은 배우들에게도 넘어야 할 산이 점점인 작품이다. 해석도 분분할 수밖에 없다.

“(이충주)어느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작품이 엄청 달라질 수 있다. 그걸 맞추는 데에 시간이 좀 걸렸다. 나머지 잔가지는 배우들의 개인기량에 맡긴다.”

“그래서 결국 이 승부의 승자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두 사람이 ㅎㅎㅎ 웃었다. 스토리상으로는 X화이트의 승리. 하지만 관객으로서 “정말 이긴 거 맞아?”하고 고개를 기울이게 된다. 정해진 답은 없다. 관객의 ‘숙제’라고 생각했는데, 임병근은 ‘뭣’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의무이자 권리다. 이충주는 “화이트를 할 때 나는 이겼다고 생각했다”며 웃었다. 현재의 화이트인 임병근은 “맞아. 그랬다”고 맞장구를 쳤다. 두 사람은 블랙과 화이트를 최근 교체해 연기 중이다.

이 작품은 결국 관객에게 “당신이라면 (악마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으십니까”라고 묻는다. 무대 위의 질문자들에게 질문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다.

“(임병근)굉장히 큰 질문인데, 솔직히 거부 못할 것 같다. 결국 이 작품의 메시지도 욕망과 쾌락이고, 이것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충주)거부 못하죠. 후후”
“(기자) 3대째이로군요.”

‘거부할 수 없는 뮤지컬’ 더 데빌은 서울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3월17일까지 막을 올린다. 임병근은 “한번이 아니라 두 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시라”고 했다. 그렇다.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댓글을 다시라. 다섯 번쯤 봤다면 아마 배우가 직접 답글을 달아 드릴지 모른다.

◇ 임병근, 이충주 배우의 인터뷰 영상은 네이버TV, 동아닷컴 VODA, 유튜브 ‘스타저장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독한 시간
(최보기 저 | 모아북스)
“독서로 당신만의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들어라!”. 서평 전문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북칼럼니스트 최보기씨의 신간이다. 이른바 100만 명이 읽은 독서칼럼 시리즈, ‘최보기의 책보기’가 드디어 책으로 나왔다. ‘인생이라는 사계를 위한 책들’을 주제로 고전, 신

간, 인문학, 경영학을 망라한 국내·외 추천도서 63권의 서평을 엄선했다. 청춘을 위해 썼던 ‘놓치기 아까운 젊은날의 책들(2013)’의 후속이다. 책을 읽는 ‘독(讀)’한 시간의 확장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총 4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보가 넘쳐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래도 책이다”라는 저자의 외침은 귀를 기울여줄 만하다.

●수선화에게 (정호승 저 | 김영사)
출판사 김영사의 군피플엔터테인먼트, 네이버 해피빈이 ‘굿리드 캠페인’을 시작했다. 책을 구입하고 읽는 행위가 곧 기부가 되는 독서 캠페인이다. 이를 위해 스타들이 나섰다. ‘수선화에게’는

에듀윌

4개월 과정 '9급 공무원 단기 패스'

9급 공무원시험, 전략 잘 짜면 단기 합격 어렵지 않다

강원도가 2019년도 신규 공무원을 총 1129명 채용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전년 선발인원 1020명에 비해 109명(9.6%)이 늘어난 수치로 지난 1월 초에 발표된 시행 계획인 1127명보다 2명 증가한 인원이기도 하다.

9급 공무원은 채용 규모만 보더라도 놀랍다.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979명을, 제3회 임용시험에서는 27명을 채용하게 되면서 올 한해 강원도에서만 전체 1006명의 9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강원도의 경우 기존 채용 규

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늘어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올해 9급 공무원 시험 합격을 노린다면 각 시도별 공무원 채용 직렬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서울 대방과 노원, 인천 부평, 경기 수원, 대전, 부산 서면 등 각 지역별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에듀윌 9급 공무원 직영학원을 운영하고 올해 안에 합격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을 오픈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빠른 합격을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 ‘에듀윌 9급 공무원 단기 패스’ 4개월 과

정이는 눈길을 끈다. 해당 과정은 독학 및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던 수험생들이나 단기 합격을 원하는 수험생들에게 막바지 합리적인 학습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과정은 2019 국가직, 지방직 9급 공무원을 대비하는 과정으로서 등록 시 교재를 전부 지급한다. 훌륭한 교수진과 쾌적한 시설로 막판 단기 합격을 지원하는 해당 과정의 등록은 2월 18일부터다.

강주현의 퍼즐월드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1		4		7		
	2			1		6		
6			7		5			2
		9		8		5		
5	6		3		9		2	8
		3		5		6		
7			9		8	3	4	6
	9			6		8	5	7
		6		3		2	9	1

			5		6		2	
5		7				9		
	2		4	7		6		
2	7			3				5
		3	1		5	6		
8				6			4	2
	5			8	2		1	
		2				8		9
	8		9		1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정답

1	6	2	1	8	9	9	7	8
1	9	8	1	9	7	2	6	1
9	7	8	8	2	6	9	1	1
6	1	9	7	9	1	8	8	2
8	2	1	6	1	8	7	9	9
7	8	9	2	8	9	6	1	1
2	1	7	9	6	1	8	8	9
9	9	6	8	1	8	1	2	7
8	1	2	9	7	2	1	9	6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15일(금)·16일(토)·17일(일)
	쥐 행운색 금: 청색 토: 흰색 일: 흰색	금 오늘의 마음: 맑음, 평화롭다. 운세: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노심초사한다. 우선 주변을 깨끗이 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도 청산하라. 길방: 동 토 오늘의 마음: 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업무적인 면에서는 인덕을 보게 된다. 특히 외국관련 업무에서 귀인을 만난다. 길방: 서 일 오늘의 마음: 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반복되는 일로 피곤한 날이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놀랄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길방: 서
	소 행운색 금: 흰색 토: 흰색 일: 흰색	금 오늘의 마음: 해·번개, 갈등. 운세: 재물이냐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쉬운 날이다. 집수리나 이사, 혼인 등 행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길방: 서 토 오늘의 마음: 맑음, 평화롭다. 운세: 자국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길방: 남 일 오늘의 마음: 가을비, 떠나고 싶다. 운세: 처음은 좋으나 중도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유는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금: 적색 토: 검정 일: 적색	금 오늘의 마음: 싸늘, 소심한 날. 운세: 전근을 바라는 날이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길방: 남 토 오늘의 마음: 해·번개, 갈등. 운세: 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임하라. 길방: 북 일 오늘의 마음: 맑음, 평화롭다. 운세: 알하기 싫고 게으름 피우고 싶은 날이다. 두뇌활동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노린다. 길방: 남
	토끼 행운색 금: 적색 토: 적색 일: 검정	금 오늘의 마음: 쾌청, 상쾌. 운세: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기운이다. 타인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한 분야에 몰입하는 날이다. 길방: 남 토 오늘의 마음: 싸늘, 소심한 날. 운세: 토끼는 원수이날을 만나면 도전적인 기운을 갖게 된다. 매사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길방: 남 일 오늘의 마음: 해·번개, 갈등. 운세: 잘 나갔던 사람은 흉한 날이며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은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길방: 북
	용 행운색 금: 흰색 토: 적색 일: 적색	금 오늘의 마음: 구름, 자유 추구. 운세: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마음은 있어도 생각과 몸이 따르지 않는다. 길방: 서 토 오늘의 마음: 쾌청, 상쾌. 운세: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는 격이다. 학업과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길방: 남 일 오늘의 마음: 싸늘, 소심한 날. 운세: 자신의 능력을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기운이 강하다. 문학이나 예술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길방: 남
	뱀 행운색 금: 청색 토: 청색 일: 노랑	금 오늘의 마음: 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모든 일이 될 듯 안 된다. 매사에 지나치게 설치다보니 계속 실수를 한다. 길방: 동 토 오늘의 마음: 구름, 자유 추구. 운세: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속이 없는 날이다. 앞서거나 서두르지 마라. 때때로는 이루어진다. 길방: 동 일 오늘의 마음: 쾌청, 상쾌. 운세: 자신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게 되며 독재하게 된다. 오늘 뱀뿔은 추진력이 대단한 날이다. 길방: 중앙
	말 행운색 금: 청색 토: 청색 일: 청색	금 오늘의 마음: 먹구름, 가시발길. 운세: 노력과 정성, 그리고 운의 결실이 있는 날이다. 느긋한 기다림으로 열심히 뛰어야 한다. 길방: 동 토 오늘의 마음: 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즉흥적인 행위로 손재수가 있거나 몸을 다칠 수도 있지만 행재수도 있는 날이다. 길방: 동 일 오늘의 마음: 구름, 자유 추구. 운세: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일단 본인이 행하는 것은 무조건적이다. 길방: 동
	양 행운색 금: 흰색 토: 적색 일: 적색	금 오늘의 마음: 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자기의 재능을 표출하고 싶은 날이다. 지나치면 유혹의 손에 걸려 넘어갈 수도 있다. 길방: 서 토 오늘의 마음: 먹구름, 가시발길. 운세: 성급한 생각으로 부동산을 비싼 값에 구입하거나 보증을 잘못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길방: 남 일 오늘의 마음: 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기발한 표책으로 상대를 누르고 실리 달성을 확실히하려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금: 검정 토: 검정 일: 검정	금 오늘의 마음: 쾌청, 환한 하루. 운세: 기회를 얻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며 일을 성사시키는 기운이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길방: 북 토 오늘의 마음: 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부부간의 분쟁, 아버지와 의전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친구 때문에 낭비할 수도 있다. 길방: 북 일 오늘의 마음: 먹구름, 가시발길. 운세: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동문회 등에서 과음하지 마라. 길방: 북
	닭 행운색 금: 검정 토: 검정 일: 검정	금 오늘의 마음: 여명, 일출 직전. 운세: 보종 등 서류문제에 있어서 보류되고 미루여지기만 한다. 복권당첨, 상속의 운도 있다. 길방: 북 토 오늘의 마음: 쾌청, 환한 하루. 운세: 만사형통할 운세이나 정신이 혼미하여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속은 있는 날이다. 길방: 북 일 오늘의 마음: 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한 가지 일에 매진 못하고 이것 저것 했다 저것 했다 하는 날이다. 지나치게 자신위주이다. 길방: 북
	개 행운색 금: 흰색 토: 적색 일: 적색	금 오늘의 마음: 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동료 간에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여라. 길방: 서 토 오늘의 마음: 여명, 일출 직전. 운세: 투자 등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침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길방: 남 일 오늘의 마음: 쾌청, 환한 하루. 운세: 공연회 마감이 급해지는 날이지만 금전적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길방: 남
	돼지 행운색 금: 흰색 토: 흰색 일: 청색	금 오늘의 마음: 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내키지 않지만 벌여놓은 일들을 마무리해야 할 때다. 길방: 서 토 오늘의 마음: 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지나친 욕심으로 남은 안보이고 자신만 보인다. 신중한 자세만이 큰 이익으로 연결된다. 길방: 서 일 오늘의 마음: 여명, 일출 직전. 운세: 큰 이익을 추구하는 날이다. 서류상의 문제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할 것 마라. 길방: 동
	재운 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1, 4, 6, 9, (2, 8) 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입 행운의 띠: 쥐, 원, 원숭이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소, 뱀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